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6:1-2)

사도 바울이 5장까지 복음을 격렬하게 설명했는데 그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지금은 너희에게 더하다’ 고 하니 여기에 대해 오늘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그릴 수 없다” 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2절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 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정체성은 뭔가요? ‘죄에 대해 죽은 자’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죽고 산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 라고 할 때 흔히 범하는 착각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은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는 말씀을 갖고 그런 강박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는 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 라는 동사를 헬라어 시제를 살려 번역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 는 것은 ‘명령’ 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절 시작이 “그런즉” 이라고 하는 것은 5장이 전제되는데 그건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분에 관한 것으로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란 것’ 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할 때 이는 율법의 ‘명령’ 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 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있는 약속은 8장에 가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신분’ 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아래로 3절에서 11절도 보시면 ‘명령’ 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되어진 ‘진리의 내용’ 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싸우는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로 하면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 영광이며 임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죄에 대해 싸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승패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영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말씀을 ‘명령’ 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신분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신앙을 체험, 감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감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입니다. 그것만 해도 내 감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감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감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태어나고 자라고 보니 내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이고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내가 부모를 닮아 있는 지 하는 것, 등등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확실하게 알죠? 것처럼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릴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께 확실한 것이지 우리 편에서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는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다’ 는 것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성이다’ 라고 설명한 것처럼 만약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감싸고 있는 1절과 3절에서 11절을 ‘명령’ 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뤄진 진리의 내용, 사실만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은 사실, 신자는 죄에 대해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다는 것은 예수 안에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며 운명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는 직설법, 즉 ‘복음’ 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명령법’ , “이렇게 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는 ‘율법’ 을 근거로 하면 신앙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순종’ 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으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질문.

1. 신자의 정체성이 뭐라 했습니까?
2.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내용에 대해 우리가 가진 세가지 오해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완전주의가 아니다.
 - 죄에 대해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안에 신자에게만 주어진 운명이며 영광이다.
 -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사실이다.
3. 1) 혹 위 세 가지 중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오해가 있습니까? 2)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까? 3)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나의 신앙을 어디에 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